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이번 주 관심사는 9월 인플레이 데이터와 연준 의사록 발표 내용
- WSJ: 미 골디락스 언제까지 계속될까?

[미국 금융]

- Bloomberg: 연준의 재검토로 미 금리 8월 이후 4%로 되돌아와

[뉴욕시]

- Fox5: 뉴욕시민 70%, “뉴욕시장 사임하라”

[미국 대선]

- TheIndependent: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을까?
- TheEconomist: 해리스와 트럼프, 경제 유토피아 공약

[물류]

- CNNBusiness: 항만 파업 끝났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나?
- WSJ: 빈 창고가 늘면서 창고 건설은 감소

[오일]

- WSJ: 지정학 변수, 석유 시장의 핵심
- CNBC: 미국 원유 2% 상승한 약 76불에서 거래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기록적인 금값에 코스트코 골드바 불티나게 판매
- Bloomberg: LG 에너지, 비전기차 사업 확장으로 매출 두 배 목표
- CNBC: 대중들 로보택시, 의견 갈린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Week Ahead for FX, Bonds: U.S. Inflation Data, Fed Minutes in Focus

이번 주 관심사는 9월 인플레이 데이터와 연준 의사록 발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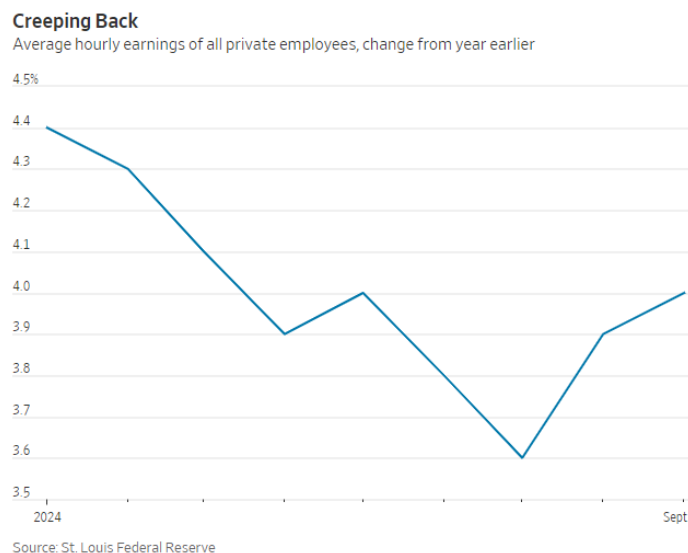
-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의 9월 의사록이 발표되고, 목요일에는 미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가 발표된다.
-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은 9월 미 인플레이 데이터와 0.5% 금리를 인하했던 9월 연준 FOMC 회의 의사록이 관심을 보일 예정이다.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 연준은 11월과 12월에도 각각 금리를 내리겠지만 인하 폭은 0.25%씩으로 예상된다. 빅컷도 가능하지만 LSEG Refinitiv 데이터에 따르면 머니마켓 시장은 두 개 회의에서 총 67베이스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파월은 최근 연설에서 9월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간대 10월 소비자 설문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된다.

WSJ 기사

WSJ: How Long Can the U.S. Economy's 'Goldilocks' Moment Last? 미 골디락스 언제까지 계속될까?

- 트레이더들은 두 가지 희소식을 접했다. 항만 파업 종료와 9월 일자리가 예상치를 넘어선 25만4천개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 미 경제가 뜨겁지도 냉각되지도 않은 골디락스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현재 문제는 중동의 긴장 상태이다. 이란 오일 시설에 대한 공격 또는 이란의 보복이 오일 가격의 급등과 인플레이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 또한 일자리가 예상 외로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 두려움이 다시 생길 수 있다. 또한 연준의 11월 FOMC 회의 수일 전의 대통령 선거의 변동성도 주목해야 한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Key US Yields Hit 4% for First Time Since August on Fed Rethink
연준의 재검토로 미 금리 8월 이후 4%로 되돌아와

- 예상 외로 큰 일자리 창출 보고서 발표로 인해 연준이 또 다른 빅컷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미 국채 금리는 8월 마지막으로 보였던 4%로 되돌아온 상태다.
- 강한 9월 일자리 보고서로 채권은 지난주 하반기부터 내려 오전에도 하락 중이다. 10년물 국채는 6베이스스 포인트 올라 4.03%, 2년물은 10베이스스 포인트 오른 4.02%로 거래되고 있다
- 예전에는 11월 금리 인하 폭을 0.5% 포인트로 예상했으나, 이제는 0.25% 인하 가능성이 80%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Fox5: Poll: Nearly 70% of New Yorkers think Mayor Eric Adams should resign

뉴욕시민 70%, “뉴욕시장 사임하라”

- 연방 조사와 뉴욕커들의 커지는 압력 속에 뉴욕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Marist College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시장은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권자는 71%가 사임을 요구했다.
- 63%의 응답자는 뉴욕주지사가 시장의 사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65%는 시장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으며, 24%만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응답자의 81%는 시장은 재임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Fox5 기사

[미국 대선]**TheIndependent: Can Kamala Harris beat Donald Trump? Latest poll updates****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을까?**

- 지난주 부통령 러닝 메이트인 JD 밴스와 팀 왈즈의 토론 이후 대선 후보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 조사는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해리스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트럼프에 우세한 상황인데, 이는 지난 8월 중순 크게 변하지 않은 추세다.
- 최근 FiveThirtyEight가 집계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 해리스가 트럼프 보다 2.6 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 주 동안 전국 여론조사들을 비교한 결과 해리스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
- 트럼프의 집이 있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의 지지는 2% 줄어들었다.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RMG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50%, 해리스는 48%를 기록했다.

TheIndependent 기사

TheEconomist: Harris's and Trump's economic plans both promise utopia**해리스와 트럼프, 경제 유토피아 공약**

- 해리스와 트럼프가 최근 발표한 경제 정책들은 아무 대가 없이 세금은 낮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일자리는 보호되고, 경제는 성장하는 유토피아 정책이다. 실행 가능성이 없다.
-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더 높은 관세, 더 낮은 국내 세금을 강조한다. 법인세를 15%로 낮추고, 팁을 비롯한 다양한 개인 세금은 감면하고,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 분석 기관 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의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1.3조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며,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필요한 비용이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주요 산업은 보호하되, 그린 뉴딜, 국민 건강 보험, 학생 부채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유지한다. 거기에 기업 소득세와 부유층 자본 이득세를 인상하고, 대신 신생아, 아동, 노인을 지원하려고 한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2만5천 달러 지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5만 달

러 세액 공제, 그리고 철강, AI, 생명 공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을 위한 세액 공제를 약속했다.

-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부과, 대규모 세금 감면, 규제 축소를 원한다. 해리스는 녹색 기술(green technology)에 대한 보조금 조정,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 국가가 산업 성장을 주도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공약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TheEconomist 기사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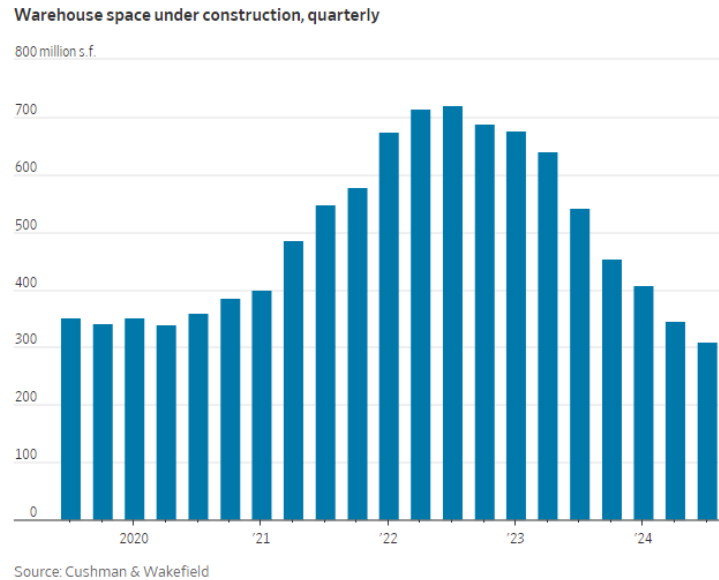
CNNBusiness: The port strike is over. Here's what happens next 항만 파업 끝났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나?

- 동부와 걸프만의 항만 파업이 3일 만에 종식됐다. 현재 시간당 39불에서 10% 약간 넘는 임금이 인상되며, 향후 6년 동안 매년 시간당 4불씩 상승하게 된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만 파업이 종식된 후부터 3일 또는 5일의 복구 기간이 필요하다. 물품 흐름이 정상화되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 뉴욕 뉴저지 항만만 해도 파업 동안 매일 2억5천만불에서 3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4일 동안 항만 업무 처리가 마비된 이곳 한 군데 항만만 해도 10억달러의 손실이 난 것으로 보인다.

CNNBusiness 기사

WSJ: Warehouse Construction Is Tumbling as Vacancy Rates Rise 빈 창고가 늘면서 창고 건설은 감소

-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자 기업들이 빠른 배송을 위해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 창고를 건설하면서 미국 창고업계가 확장됐었다.
-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창고업계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Cushman & Wakefield에 따르면 3분기 산업용 부동산 건설 면적이 3억9백만 평방피트로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3분기 산업용 부동산 공실률(업무용 빌딩에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같은 기간 4.6%에서 6.4%까지 상승했다. 2014년 말 이후 분기별 최고치이다.
-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창고 운영자들은 9월에 8월보다 1만1천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저장 및 유통 부문에서 일자리가 2022년 5월 팬데믹 최고치인 194만 개에서 17만1천600개가 줄어들었다.



WSJ 기사

[오일]

WSJ: Geopolitics Still a Key Factor for Oil Markets

지정학 변수, 석유 시장의 핵심

- Phillip Nova의 수석 시장 분석가 Priyanka Sachdeva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석유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돼 유가가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0.65% 상승한 배럴당 78.56달러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1% 상승한 75.1달러를 기록했다.
- 이스라엘이 보복을 공언하면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란은 하루 약 3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이란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석유 시장에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 하지만 세계 수요 전망도 약화되고 있다. Sachdeva는 중국 정부의 지원책으로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진 유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U.S. crude oil jumps 2%, trades near \$76 as market waits for Israel strike against Iran

미국 원유 2% 상승한 약 76불에서 거래

- 미국 원유가 월요일 약 2% 상승했다. 시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유가가 올랐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배럴당 75.93달러, 2.08%(1.55달러) 상승
- 브렌트유: 배럴당 79.47달러, 1.82%(1.42달러) 상승
- RBC Capital Market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 Helima Croft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할지,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반대했다.
-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Kharg 섬을 공격하거나,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Costco's Gold Bars Fly Off Shelves as Bullion Prices Smash Records

기록적인 금값에 코스트코 골드바 불티나게 판매

- 올해 금값이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고 있다. 미국 전역 코스트코 매장에서 골드바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코스트코의 원스톱 쇼핑은 저렴한 가격과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금은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 대응 수단으로서 수요가 높다.
-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 골드바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트코 매장 중 약 77%가 매진됐다. 미국인들이 금값 상승을 이용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뉴욕 전당포와 보석상은 금 판매가 늘었다. 미 조폐국에 따르면 소매 구매 대리 지표인 아메리카 이글 금화 판매량은 1월부터 9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 감소했다.
- 코스트코는 2023년 6월부터 미국 매장과 웹사이트에서 골드바 판매를 시작했다. 코스트코 경영진은 2023년 9월 실적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골드바의 인기에 대해 언급했다. 회계연도 1분기에 약 5만1천740온스, 1억 달러 이상의 골드바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LG Energy Aims to Double Sales by Expanding Non-EV Business

LG 에너지, 비전기차 사업 확장으로 매출 두 배 목표

- 배터리 제조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비전기차 사업을 확장해 2028년까지 매출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대표이사는 “배터리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LG 에너지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판매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 에너지는 관리, 리스, 임대와 같은 소프트웨어 및 배터리 관련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Robotaxis are here but the public is reluctant to embrace them

대중들 로보택시, 의견 갈린다

- 로보택시가 이미 출시됐지만 대중들은 로보택시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PEW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자율주행차를 탈 기회가 주어져도 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GM 소속 Cruise의 자율주행차가 일으켰던 사고 때문이다.
- 이제 테슬라가 수년 만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로보택시 분야 선두 주자는 Alphabet의 Waymo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에서 유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몇 달 만에 이용수가 두 배 증가해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아마존은 Zoox 차량을 준비하고 있다. Cruise도 운영을 재개했다.

- 자율주행이 확장됨에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논쟁이 있다. 소비자들이 과연 낯선 사람의 차에 타고, 대화하며, 팁을 주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버는 로보택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지만, 파트너십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불확실하다.

CNBC 기사

[보고서]

갑자기 좋아진 美고용시장... '노랜딩' 가능성 급부상 "인플레이션 안죽어", "경착륙과 함께 경계해야" 목소리도 S&P500 기업, 3분기 실적 기대 이전 분기보다 낮아져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가라앉지 않는 이른바 '노랜딩'(no landing·무착륙) 가능성이 갑자기 커졌다.

미국 경제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완만하게 성장도 하는 '연착륙'(soft landing)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급격히 주저앉아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경착륙'(hard landing)이 나올 것이냐가 관심거리였으나 이제 아예 경기가 내려오지 않는 '노랜딩'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무착륙'은 '연착륙'보다도 더 경기가 더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높이고 금리인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투자자도 많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